

아시아 프로필렌 수익성 오락가락

가격변동 갈수록 심화 ... 나프타 가격보다는 PP 따라 변동 행태

아시아의 프로필렌(Propylene) Spot 가격이 나프타(Naphtha)에 비해 냄비시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비슷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프로필렌 시장은 Spot 거래되는 비율이 미국이나 유럽만큼 높지 않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공급기업도 한정적인 편이며, PP 수급이 위축되면 Spot 거래를 원하는 수요자가 늘지만 공급기업은 쉽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프로필렌 시장이 공급기업 위주로 전개돼 Naphtha 등 프로필렌 원료코스트보다 유도제품의 채산성에 맞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급·수요면 모두에서 Spot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Spot 의존도를 점점 줄여나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아시아 프로필렌 시장은 나프타 가격에 비해 변동이 심할 것으로 보이며, 에틸렌(Ethylene)과의 가격 차이도 아시아 Spot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나아가 모노머의 가치는 Polyolefin의 가격동향에 따라 결정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HDPE, PP 모두 Spread가 비슷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PP(Polypropylene)는 앞으로 수급균형이 차츰 개선돼 낮은 마진율이 회복되고 국제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료 프로필렌 가격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원료코스트가 나쁜 PP 생산기업들이 시장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시아의 Polyolefin 수요(2001)

(단위: 100만M/T, %)

구 분	P E	P P	합 계	증감률
중 국	6.5	5.2	11.7	37
일 본	2.8	2.7	5.5	17
한 국	1.7	1.1	2.7	9
인디아	1.3	0.9	2.2	7
타이완	1.0	0.6	1.5	5
타 이	0.8	0.6	1.4	4
인도네시아	0.6	0.6	1.2	4
말레이시아	0.5	0.3	0.2	2

지금까지는 수출채산성이 나쁜 사례도 많았으나 앞으로는 수출·내수를 불문하고 최종시점에서 채산성이 좋은 곳에 판매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수출채산성이 내수채산성과 비슷하면 재빠르게 판매전략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레이드와 가격설정을 세계화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에서 일본은 2번째로 큰 시장으로 8개국 중 84%를 차지하며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해외 생산기업들이 수출에서 일본을 중시하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수출 중심국가이고 시장구조나 상관행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본에서 설비와 그레이드의 통폐합, 거래관행의 개선이 진전되면 중국 이외지역으로 수출처를 분산하고자 하는 석유화학기업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일본시장에서 수입비중이 높아질 가능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대량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강점으로 아시아 지역 전체를 고려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으며, 일본의 프로필렌 시장은 결코 나쁘지 않은 상태이다.

앞으로 아시아 PP 수급균형과 프로필렌 수급균형을 고려하면 PP 시장은 회복 가능성이 있으나 수급타이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